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⑬ 싯달타 태자 출가를 막아라



▶ 한줄요약
사문 밖에서 노병사를 체험하고 온 싯달타 태자는 출가할 뜻을 밝히자, 아버지 정반왕은 여인과 온갖 보석으로 아들의 출가를 막고자 노력한다. 태자는 6년 뒤 아들 라훌라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다.

갖은 유혹에도 태자 출가 결심 공고히



그림 · 강병호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치열하게 한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본다. 나의 경우 결혼이 그랬던 것 같다. 30대 중반까지 독신을 고집하였다. 어느 날 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친척의 한 마디가 자극이 되었다. 아니 우리 식구 발 뻗고 편히 사는데 왜 친척이 잠을 못 자나. 20세기말 만해도 여자는 20대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가끔 악지식이 인생의 선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 싯달타의 출가 결심을 듣고 울며 말리는 이야기로 끝났다. 그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
사십오장
아버님께 말씀드려 네 가지 소원을 청하며 집을 나가고자 하시니
태자의 손 잡으시고 두 눈에 눈물 지으시며 문을 잡고 막으시니

태자는 '노병사'와 '이별'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출가하고자 하였다. 싯달타 태자는 정거천의 인도에 따라 출가의 결심을 굳히고 차근차근 채비를 한다. 먼저 정반왕이 걱정하는 후사를 잇기 위하여 부인 구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구이는 남편이 곧 출가할 것을 직감하고 항상 곁을 지킨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풍류하는 엔터테이너를 더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럴수록 출가를 지휘하는 정거천은 밤마다 내려와 태자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잡는다. 태자에게 세상 환락을 시듯하게 여기게 한다. 그렇게 태자가 출가하는 이월 초이레가 다가온다.

아들 라후라 출산 예언
태자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여섯 해째에 아들을 낳으리라"
구이가 생각하기를 태자가 나가실까 의심하여 항상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태자가 아들 라후라를 구이에게 임신 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불설중허마하제경〉 5권에는 "만약에 아들이거나 딸이 없이 곧 떠나가서 수행하면 뭇 사람들이 함께 말하기를 '싯달타 태자는 바로 대장부가 아니었으리라' 고 하리니, 나아가 이별한 뒤에 야륜타라의 몸에 임신을 하게 하리라(若無男女便去修行, 衆人俱言 悉達多太子非是丈夫°出別之後, 卽令耶輸身有懷妊)"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4권에서는 "그때 보살은 궁안의 유희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지금 세 명의 부인과 6만 명의 채녀가 있는데 만약 그들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면, 바깥사람들이 나를 남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터이니 나는 지금 야수다라와 합방할 것이다.' 야수다라는 그 길로 임신하였다."

'구이'를 '야륜타라'와 '야수다라'로 명명하고 있지만 출가 후의 임신과 출가 당일 임신 두 가지 내용이 경전마다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그만큼 보통사람의 생각에 라훌라의 탄생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사십육장
태자는 효도하실 마음에 훗날을 생각하여 구이의 배를 가리켜 임신을 수기 하시니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 나가실까 저어하여 태자 곁에 앉아계시니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께 아들 도리를 다하고자 아내 구이에게 임신을 예언했든 그날 임신을 했든 후사를 확실히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어여쁘다'는 훈민정음 서문에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글자를 창제한다'고 썼듯이 현대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 '가엾이 여긴다'라는 '민연(憫然)'의 뜻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와 중세의 의미를 함축하여 이 말을 되살려 쓰고 싶어 그대로 살렸다. 글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가엽고 딱한 생각이 드는 어여삐 여김이라면 아내 구이가 고대광실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남편 싯달타가 왕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수행자가 되려는 모습도 딱 그만큼이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그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저어하다'도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이다. '염려하고 걱정하여 꺼리는' 마음이 깃든 모습으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어여쁜 아내인 것이다.

四門서 老病死 확인한 태자
정거천 인도로 출가 결심해
6년 뒤 라훌라 출산 예언도
호화로운 보석, 여인 등에도
금강석 같은 발심을 못 막아

매일 밤 정거천의 일깨움
태자가 문 밖에 나가보신 후로 세간의 슬픈 마음이 나날이 더하시거늘 왕이 오히려 풍류하는 사람을 더하여 달래시었다.
항상 밤중이 되면 정거천이 허공에 내려와 일깨워 드렸다.
풍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태자의 오욕에 즐겁지 않게 하고 세상이 무상하니 '어서 출가하소서'하는 소리를 하게 하였다.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하는 것과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하는 것, 입에 좋은 맛 먹고자 하는 것,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풍류하는 여인들이 깊이 잠들어 아랫도리를 풀어 헤쳐지고 코와 침 같은 더러운 것이 흐르게 하였거든, 태자가 보시고 더욱 시듯하게 여기셨다.

정반왕은 세간의 오감과 몸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으로 태자를 붙들어두려고 노력할수록 정거천은 눈에 보기 아름답고 귀에 들리는 음악소리, 향기로운 후각,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이 덧없게 느껴지도록 한다. 세상 일이 무상하니 출가하라는 말을 들은 태자는 자신을 즐겁게 한 아름답고 기예 뛰어난 여인들의 무방비하고 추한 모습을 목도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듯해진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싫증나 시들하다는 우리말 표현이다. 정거천의 완승이다.

사십칠장
아버님 분별하여 고운 각시들과 풍류 소리로 태자의 선심(善心)을 막으시니
정거천의 신력에 더러운 각시들과 풍류 소리로 욕심(欲心)을 막으시니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태자의 출가 발심을 선심(善心)으로, 정반왕의 출가를 막으려는 세상 풍류를 욕심(欲心)으로 정리하였다. 발심을 선심으로 한 것도 멋지고 선심의 반대를 악심(惡心)으로 쓰지 않고 욕심으로 선택한 것도 정곡을 찌른 표현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선심의 반대라고 악심이 될 수 있으랴.

정반왕의 필사적 노력
태자가 자주 왕께 '출가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뢰거늘 왕이 말씀하셨다.
"네가 마땅히 전륜성왕이 되어 칠보천자를 가지고 사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이거늘 어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을 즐기느냐."
태자가 대답하였다.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모두 주관하여 사생을 제도하고 긴 밤을 여의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오니 칠보 사천하를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생(四生)은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이니 축축하고 진 곳에서 나는 것과 번생(翻生)하여 나는 것, 알을 까서 나는 것, 배어서 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다 이르는 것이다. 번생은 고쳐 되어 나는 것이다. 긴 밤은 중생이 미혹하여 항상 밤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긴 밤이라 하는 것이다. 왕이 풍류하는 사람을 더 보태어 밤낮으로 달래셨다.

여기서 사생은 '습생(濕生), 화생(化生), 난생(卵生), 태생(胎生)'을 말한다. 화생을 번생이라 하였는데 천계나 지옥의 중생과 같이 과거 자신의 업력에 의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생의 미혹을 길고 긴 깜깜한 밤중을 헤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나 불빛 하나 없는 장소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빛 공해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몇 번의 경험이 있다. 30년 전 인도 시골 캄캄한 쿠시나가라에 부처님 열반지라고 찾아 갔는데 버스에서 내려 가로등 하나 없어 막막했을 때, 아주 어린 시절 등잔불이 전부인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저녁밥 먹기 무섭게 등잔불의 기름을 아낀다고 억지로 자야만 했을 때가 그렇다.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중생의 미혹에 비유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내 깜냥만큼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아들에게 아버지 왕은 세간의 즐거움을 물질적으로 보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목마른 이에게 사탕을 퍼붓는 일.

사십팔장
칠보천자(七寶千子)로 사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버님 뜻이시니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드님 뜻이시니

칠보천자는 전륜성왕이 갖춘 칠보와 천명의 아들이다. 정반왕은 아들이 부처가 되기보다 전륜성왕이 되어 동서남북 네 천하를 다스기를 바라건만 아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 그보다 더 큰 우주의 중생들을 깜깜한 한 밤중에서 건져내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다. 21세기 80억 명에 가까운 인간이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 옛날에 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로서는 차마 생각조차 닿지 못할 꿈이지만 이 글을 쓰며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 자신의 자리(自利)로 이타(利他)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